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양식의 조형원리와 현대패션디자인에의 적용
- 1999년 이후 클래식 스타일 패션을 중심으로 -

이 신 영[†]
동양대학교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

Layout Principles of Renaissance Classicism Architectural Style and
Its Application on Modern Fashion Design
- Focused on Classic Style Fashion after the Year 1999 -

Shin-Young Lee[†]

Dept. of Fashion Design & Stylist, Dongyang University
(2009. 12. 2. 접수일 : 2010. 3. 3. 수정완료일 : 2010. 4. 10. 게재확정일)

Abstract

The analysis of an art trend in the principle dimension starts by observing the object of work in the perspective of formative composition and recognizing it as a universal system. It can be said that it is consistent with an interpretation method for a form theory of formal history by Heinrich Wölfflin, a leading form critic in art criticism. H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at are the formative principles in Renaissance Classicism as a design principle to be applicable to modern fashion by reviewi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Renaissance Classicism Architecture with which Wölfflin directly dealt. As for the theoretical literature review, I used Wölfflin's theoretical framework and looked at the Renaissance Classicism Architecture that he studied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his theory as a layout principle and the characteristics. As for analysis of design cases, I applied the aforementioned architecture layout principle to modern fashion and conducted case study analysis to delve into distinctive layout principles found in fashion. The study showed that the Renaissance Classicism Architectural Style is marked by linearity, planarity, closing and multiple unity: linearity was expressed in the observation form in fixed frontal view and an emphasis on a tangible silhouette homeogenous and definite line structures; planarity was achieved in the form of paralleled layers of frontal view element, planarity style, and identical and proportional repetition of various sizes.; closing signified the pursuit of complete and clear regularity, and architecture developed in a constructive phase through organizational inevitability and absolute invariability.; multiple unity was expressed in self-completeness and independent parallel of discrete forms and harmony of emphasized individual elements in a totality. Applying these layout characteristics of the Renaissance Classicism Architectural style and to see their individual expressive features, I found out that in adopting layout principles of the Renaissance Classicism Architecture to modern fashion, it turned out to be an emphasis of individual silhouettes, a flattened space, completed objects, organic harmony among independent parts: the emphasis of individual silhouettes was expressed in individual definitiveness of formative lines of clothes in accordance with body joints

[†] 교신저자 E-mail : piupiu9995@hanmail.net

and an emphasis on formative lines of clothes; the flattened space was marked by single layer structure, planarity of elements of clothes, and listing arrangement by appropriate proportion.; the completedness of the objects was expressed by the stationary state where overall image is fixed, the construction of homogeneous and complete space, and absolute inevitability of internal layout in proportion; lastly, organic harmony of independent parts was stressed in independent completedness of each detail, and organic harmony of the whole. The expressive features would lead to a unique expression style of linear emphasis, proportion, constructive forms, and two-dimensional arrangement. The meaning of this study is follows: The characteristics of art school of thought are given shape by applying & analysing the architectural layout principles of historical art school of thought to modern fashion in the view point of formal construction dimension. The applied possibility of historical art school of thought as the source of inspiration about the fashion design is extended.

Key words: Renaissance Classicism(르네상스 고전주의), architectural style(건축양식), layout principles(조형원리), fashion design(패션디자인).

I.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예술사조의 현대적 변용과 표현을 위한 다각적 시도는 현대패션을 다양한 예술적 표현의 장으로 이끌고 있다. 패션에 있어 역사적으로 한 시대를 품기했던 예술사조들은 단순히 생성되고 절정을 이루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의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조형원리로서 선택적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즉, 과거의 양식들은 새로운 트렌드의 영감의 원천이 되며, 그것에 영향을 주고 또한 일부는 또 다른 트렌드의 탄생에 도움을 주는 텍스트로 존재하는 것이다. 패션디자인에 있어 이러한 역사적 예술사조의 활용은 조형적 요소의 활용 및 디자인 원리로서의 조형원리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조형(造形)이라 함은 형태를 이루어서 만듦을 의미하는 것으로, 점, 선, 면, 색, 빛, 공간, 시간 등의 여러 요소와 여러 가지 재질을 이용하여 촉각적이거나 시각적 혹은 역학적으로 이차원, 삼차원의 공간 안에 자율적이며 창조적으로 형(shape)이나 형태(form)를 조직화하는 것을 말한다¹⁾. 이러한 조형 활동에 활용되어지는 디자인 원리를 조형원리

라고 할 때, 조형원리는 분야마다 각기 다른 조형 요소 또는 표현매체를 갖게 된다. 따라서 디자인을 함에 있어 요소의 선택과 조형원리의 적용은 개별적 디자인 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예술사조를 활용한 디자인 전개에 있어 요소적 차원은 해당 양식의 디테일 형태 적용에 따른 것으로, 이미지와 스타일에 있어 그 출처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원리적 차원은 대상작품을 가시적 형태구성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구성하는 개별 디자인 요소들의 조합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요소적 차원의 디자인 전개에 비해 표현의 직접성은 떨어지나, 그 활용의 가능성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

원리적 차원으로서의 예술사조의 조형원리 분석은 시대의 대상작품을 형식적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관찰하고 그 양식을 보편적 체계로서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는 대표적인 형식비평주의자 하인리히 뵐플린(Heinrich Wölfflin)²⁾의 형식사적 양식론의 해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 뵐플린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조형작품에 대한 양식사적 해석의 정점을 이루는 인물이며, 오늘날 ‘순수 가시성’이라는 상징들의 발견자로 생각되고 있다. 그의 저

1) 조영제, 권명광, 안상수, 이순중 기획, *디자인사전*, (서울: 안그라픽스, 2000), p. 68.

2) 스위스 미술사가. 빈테르투르 출생. 당대 독일어권 미술사가들 중 가장 중요한 한 사람으로 바젤, 베를린, 뮌헨 대학 등에서 수학하였으며, 후에는 그 자신이 바젤대학(1893~1901), 베를린대학(1901~1912), 뮌헨대학(1912~1924), 취리히대학(1924~1934) 등에서 교수로 활동하였다. 주로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미술에 대한 심리학적 형식분석으로 요약될 수 있는 그의 연구를 대표할 만한 저술로는 『미술사의 기초개념(Kunstgeschichtliche Grundbegriffe)』 외에도 『르네상스와 바로크(Renaissance und Barock)』(1888), 『고전 미술(Die Klassische Kunst)』(1899), 『뒤러의 예술(Die Kunst Albercht Dürers)』(1905) 등이 있다.

술은 회화, 조각 및 건축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에 근거를 두고 미술사의 이론과 법칙을 제시하였다³⁾. 빌플린은 그의 저서에서 강조하는 바는 모든 예술적 표현은 양식적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분류는 가치 판단과는 거리가 멀며, 표상형성의 형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빌플린의 관찰 대상은 소묘, 회화, 조각, 건축이었지만, 이러한 관찰방법은 패션 디자인을 포함한 여타의 조형 활동에 관한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여러 조형예술분야 중에서도 건축과 패션은 하나의 덩어리로서 윤곽(silhouettes)을 가지고 전후, 좌우 시점에 따른 방향성을 가지며 관찰자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다른 조형예술분야보다 좀 더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회화나 조각과 같은 순수예술이 아닌 합리적 형태와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실용물(實用物)인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점은 예술사조를 패션에 적용, 디자인을 전개함에 있어 해당 건축양식의 조형원리 분석·적용이 그 양식적 디테일의 차용에 따른 이미지 차원의 디자인 전개와는 다른 형태구성 차원에서의 디자인 전개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빌플린이 직접적으로 다루었던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의 조형특성을 원리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 시각적 양태를 구성하는 조형요소들의 결합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패션에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 원리로서의 르네상스 고전주의 조형원리는 무엇이며, 그 특성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⁴⁾.

이러한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순수 가시성의 차원에서 살펴본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양식의 조형원리적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양식의 조형원리가 현대패션에는 어떻게 적용되며, 패션을 통해 보여지는 각각의 표현양식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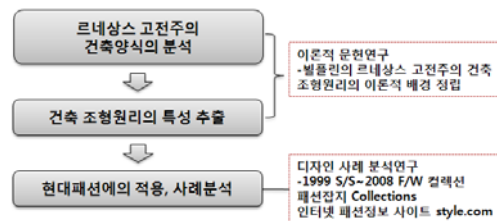
이러한 연구의 의의는 역사적 예술사조의 건축 조형원리를 현대패션에 적용·분석함으로써 형태구성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예술사조의 특성을 구체화 한다는 점이다. 이는 패션디자인의 영감의 원천으로서 역사적 예술사조가 응용될 수 있는 범용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단순히 요소적 형태의 차용이 아닌 발상의 근원으로써의 조형원리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빌플린의 형식사적 양식론의 해석방법을 적용하여 <그림 1>과 같은 과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론적 문헌연구를 통해서 빌플린의 논의를 중심으로 그가 직접적으로 살펴보았던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을 살펴보고, 조형원리로서의 논의의 적용 가능 지점과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미술사의 기초개념(Kunstgeschichtliche Grundbegriffe)』을 포함한 건축관계문헌, 정기간행물, 기타 국내논문 등을 통하여 건축 조형원리의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였다.

디자인 사례 분석연구에 있어서는 위에서 살펴본 건축 조형원리를 현대패션에 적용, 사례분석을 통해 패션에 나타난 조형원리 특성을 알아보았다. 분석대상은 1999 S/S 시즌부터 2008 F/W 시즌까지 패션 컬렉션을 통해 발표된 디자인들 중 르네상스 고전주의 스타일의 패션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



<그림 1> 연구방법의 도식.

3) 정우영, “회화작품에 대한 양식사적 해석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50.

4) 고전주의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은 그리스 고전주의와 신고전주의의 패션 스타일의 복식사적 요소 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현대패션디자인 연구에 있어 르네상스 고전주의의 패션 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디테일 형태에 따른 복식사적 요소 차원의 분석이 배제된 형태구성 차원의 조형원리를 중심으로 디자인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 분석 내용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추가 되었음을 미리 밝힌다.

석기간을 최근 10년으로 한 이유는 과거 예술사조의 조형원리가 현대패션디자인에 디자인 원리로서 적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각적 표현 특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최근의 디자인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변용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사진들은 컬렉션 작품을 소개하는 잡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의 작품을 보여주는 패션잡지 Collections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무료로 제공되는 이점에 따라 가장 대중적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패션정보 사이트 style.com을 통해 수집하였다.

II.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양식의 조형원리

건축에 있어 고전주의 양식은 역사적으로 크게 세 시기와 관련되어 발전된 개념이다. 그 첫 번째 시기는 ‘고전’의 탄생 시기로, 고대 그리스·로마 양식들의 조형원리를 후대 사람들이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⁵⁾, 이를 다시 부흥시킨 15~16세기 르네상스 시기의 건축양식들은 ‘고전’의 건축양식들을 표방하며, 그 조형원리를 따름으로써 ‘고전주의’ 양식을 완성하게 된다^{6,7)}. 이후 고전주의 양식은 17세기 바로크 시기를 지난 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데, 바로크 양식에 대한 반동으로서 엄정하게 고전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경향으로 이전 르네상스 고전주의 양식과 시대적 변별성을 두기 위해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불리게 된다⁸⁾. 따라서 건축에 있어 고전주의 양식에 관해 언급할 경우 ‘고전’과 ‘르네상스 고전주의’, ‘신고전주의’의 시기적 구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은 완벽한 비례와 균형을 지닌 르네상스 전성기 건축을 말하며, 뷔플린의 형식

사적 양식론의 해석방법을 통해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양식의 조형적 특성을 조형원리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형작품의 형식적(formal) 특성들을 분석하여 일정한 양식의 법칙을 찾아내려 했던 뷔플린의 방법론은 그의 저서들 중 『미술사의 기초개념(Kunstgeschichtliche Grundbegriffe)』(1915)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그는 역사적으로 대립적 양식으로 이해되어 온 전성기 르네상스 고전주의(16세기)로부터 바로크(17세기) 양식으로서의 변화를 각각 하나의 양식단위로 설정하여 유형과 유형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저서에서 뷔플린은 그를 현대미술사의 창시자로까지 일컬어지게 만든 새로운 분석 모델을 제시했다. 즉, 작품의 양식적 특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순수 가치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범주로 세분화시켜 시대양식의 특징을 논증하고 있는 것이다⁹⁾.

1. 선적인 것과 회화적인 것(das Lineare und das Malerische)
2. 평면성과 깊이감(Fläche und Tiefe)
3. 폐쇄된 형태와 개방된 형태(geschlossene Form und offene Form)
4. 다원성과 통일성(Vielheit und Einheit)
5. 명료성과 불명료성(Klarheit und Unklarheit)¹⁰⁾

그는 르네상스 고전주의와 바로크 양식의 회화, 조각, 건축 작품을 통해 위 개념쌍들의 조형적 특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개념쌍들이 이성적·감성적 경향의 다른 시대적 양식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개념쌍들은 서로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뷔플린은 선적인 것, 평면성, 폐쇄된 형태, 다원성은 결국 명료성을 위한 과정으로, 회화적인 것, 깊이

5) 캐롤 스트릭랜드, *클릭, 서양건축사*, 양상현, 서민영, 조난주, 김마리 역 (서울: 예경, 2003), p. 36.

6) 마크 켈런터, *보이는 건축 보이지 않는 생각: 건축 디자인이론의 비판적 역사*, 최아사 역 (서울: 도서출판한길사, 2007), p. 127.

7) 캐롤 스트릭랜드, *op. cit.*, pp. 98-99.

8) 김성곤, 김경희, *서양건축사*, (서울: 기문당, 2003), pp. 337-338.

9) 정우영, *op. cit.*, p. 51.

10) 하인리히 뷔플린, *미술사의 기초개념(Kunstgeschichtliche Grundbegriffe)*, 박지형 역 (서울: 시공사, 1995), p. 5.

감, 개방된 형태, 통일성의 개념은 모두 일종의 불명료화를 위한 과정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¹¹⁾. 결국 위 개념쌍 중 명료성과 불명료성의 개념은 그의 개념쌍들이 가지는 궁극적 시각형태임을 뜻한다.

또한 ‘발전의 순환성’과 관련하여 “서양 건축의 전 양식을 통해 어떤 일관된 발전법칙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띤다. 고전주의적 성향과 바로크적 성향은 근대나 고대 건축에서뿐만 아니라 고딕 같은 전혀 이질적인 양식에서도 발견된다. 전성기 고딕은 전혀 다른 인상을 주지만 그 형태체계의 일반적 성향면에서 우리가 르네상스의 고전주의적 양식을 특징짓기 위해 도입한 개념들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¹²⁾고 하면서 이러한 주기적 개념이 다른 역사적 시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자신의 개념이 ‘초역사성’을 지닌다고 생각하였던 뵐플린의 이러한 논거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조형작품 해석에 있어 예술가의 의도나 세계관의 작용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나아가 예술가 개인들과 사회와 그 시대의 복합적인 요구가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비판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결코 양식사적 해석방법을 배척한 것은 아니며, 다만 좀 더 긴밀히 덧붙여야 할 사항들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¹³⁾. 뵐플린의 논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해석방법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뵐플린이 한 시기에 있어서나 혹은 하나의 작품 내에서 여러 가지 시각적인 양식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¹⁴⁾. 또한 양식사적 해석이 비록 모든 작품을 아우르는 보편성을 결여했을지라도 조형작품 해석의 토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¹⁵⁾. 뵐플린은 조형에 대한 역사적인 법칙

성을 말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또한 조형작품은 바로 그와 같은 역사적 법칙성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입증하려 한 것이었다¹⁶⁾. 뵐플린 이후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대상이 조형적이건 도상학적이건 혹은 내용상의 문제이건 간에 뵐플린의 용어들과 그의 기본적인 형태상의 비교 접근방법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¹⁷⁾.

본 장에서는 뵐플린이 그의 저서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한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에 나타난 조형원리를 그의 개념쌍의 의미를 빌어 각각 선형성, 평면성, 폐쇄성, 다원적 통일성의 개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선형성

순수가시성의 측면에서 선적인 양식이란 사물의 윤곽선에 중점을 두어 경계점, 즉 사물간의 명백한 분리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관찰자의 눈에 보이는 윤곽선들이 형태에 대한 정보의 주된 원천이 됨을 말한다¹⁸⁾. 르네상스 고전주의 조형원리의 가장 큰 특징은 선적 구조에 있다. 고전주의적 양식에서 사물의 느낌이나 아름다움은 균일하고 명료한 윤곽선에서 찾을 수 있다. 윤곽선은 하나의 경계선 또는 어떤 주어진 각도에서 바라본 3차원적인 형태의 외부경계인 물체의 실루엣을 말한다. 모든 형태를 견고하고 균일한 윤곽선으로 표현하며, 윤곽선에 의해 드러난 명료하고 고정된 형태는 선적 구조가 강조되어 구축적 형태를 가지게 된다¹⁹⁾.

브라만테(Donato di Angelo Bramante, 1444~1514)가 설계한 집중식 건축물인 성 베드로 성당(그림 2, 3)은 중앙에 커다란 돔을 두고 전후좌우에 같은 형식의 집중회당(集中會堂)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⁰⁾. 그들에게 있어 본질적인 것은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11) Ibid., p. 314.

12) Ibid., p. 323.

13) 정우영, op. cit., p. 58.

14) Ibid., p. 57.

15) Ibid., p. 58.

16) 헤르만 바워, *미술사학의 이해*, 홍진경 역 (서울: 시공사, 1998), p. 99.

17) 정우영, op. cit., p.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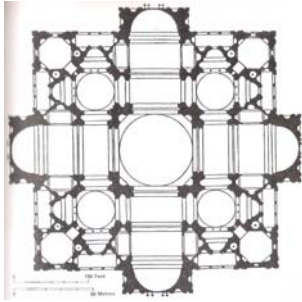
18) 조선영, “지역사회공동체(communitiy)로서의 교회환경디자인 연구: 뵐플린의 미적 시각 이론과 프랙탈 기하학의 조형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23.

19) 하인리히 뵐플린, op. cit., p. 309.

20) 김성곤, 김경희, op. cit., p. 294.



〈그림 2〉 성 베드로 성당 전경(좌)과 정면 외관(우).
출처: 김성곤, 김정희, *서양건축사* (서울: 기문당, 2003),
pp. 295-296.



〈그림 3〉 브라만테가 계획한 성 베드로 성당의 원안(原案).
출처: 니콜라우스 페브스너, *유럽 건축사 개관*, 김복지 외 역 (서울: 태림문화사, 2000), p. 189.

것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은 감상자의 그 어떠한 시점도 인정하지 않거나 모든 시점을 다 인정한다. 즉, 성 베드로 성당은 사방이 동일한 집중식 구조로 모든 형태는 시점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일종의 완결성은 띠게 된다²¹⁾. 견고하고 항구적인 형태가 지배적이며 선, 면, 기하학적 형태의 가축적인 요소가 지배력을 행사한다. 명료한 선적 구조의 윤곽선이 주는 ‘완전무결한’ 형태의 추구는 영원불변한 비례적 완벽성을 가시화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²²⁾.

2. 평면성

명료하고 고립된 형태들은 중첩을 허용하지 않

으므로 병렬적 층 형태의 평면성의 원리를 보여준다. 평면성의 원리란 모든 것을 예외 없이 단일 평면에 배치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주된 형태들은 반드시 동일 평면에 배치되어야 하며, 이때 평면성은 항상 기본적 형식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방체나 공간의 객관적인 현존 그 자체는 아무런 양식적 규준이 될 수 없다²³⁾. 정면적 요소의 병렬 배치를 통한 평면적인 층구조는 건축에서의 모든 깊이를 와해시킨다.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의 진가는 평면 기하학적 형태에 있는 것이다²⁴⁾.

〈그림 4〉의 팔라초 칸첼레리아는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에 있어 평면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관찰자는 이 건물에서 평면적인 인상을 배제하기 어렵다²⁵⁾. 벽면은 단순 평면적 병립 원리에 따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높이와 넓이의 구획들로 구성되어 있다²⁶⁾. 균제성과 안정감을 주는 모든 요소는 완결된 구조를 이루게 되며, 구축적 양상을 띠게 된다. 동일한 비례를 다양한 크기로 반복하여 평면적이면서도 기하학적인 구축적 구조를 보이는²⁷⁾ 이



〈그림 4〉 팔라초 칸첼레리아.

출처: 하인리히 뵐플린, *미술사의 기초개념(Kunstgeschichtliche Grundbegriffe)*, 박지형 역 (서울: 시공사, 1995), p. 264.

21) 하인리히 뵐플린, *op. cit.*, p. 100.

22) *Ibid.*, p. 103.

23) *Ibid.*, p. 165.

24) *Ibid.*, p. 170.

25) *Ibid.*, p. 167.

26) *Ibid.*, p. 173.

것은 고전주의 양식을 안정되게, 또한 완성체로 보이게 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3. 폐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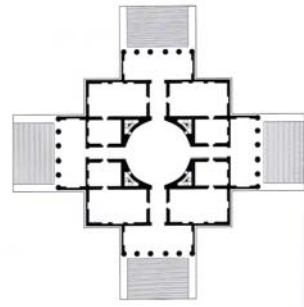
벨플린은 폐쇄된 형태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여 구축적 양식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구축적 양식은 무엇보다 완결되고 명료한 법칙성을 추구하는 양식이다. 모든 효과의 핵심적 중추를 이루는 것은 조직적 필연성과 절대적 불가변성으로²⁸⁾, 규정된 형태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²⁹⁾.

고전적 감각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기하학적 요소는 출발이자 끝을 의미하며 평면뿐 아니라 입면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하였다³⁰⁾. 팔라디오(Andrea Palladio, 1508~1580)는 모든 건물은 중심축을 따라 대칭으로 뻗어나가야 하고 모든 방들은 명료한 수학적 비례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실천하였으며, 그 대표적 작품은 빌라 로톤다(그림 5, 6)이다. 동일한 모양의 신전 포티코(portico)³¹⁾가 빌라의 네 면 모두에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한 방은 중앙에 위치하고 중앙 상부는 돔으로 덮였다. 팔라디오는 대칭과 명료함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방은 인접한 방에 비례하였고, 방 자체도 대칭으로 구성되었다³²⁾.

건축에 있어 르네상스 고전주의 양식은 절대적으로 완결된 형태라는 이념을 실현했다. 이 양식은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부분들이 위치나 형태상 결코 변동시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필연성을 띠게 됨으로써 구축성의 진수를 드러낸다³³⁾. 일관된 구조 속에 나타나는 형태들의 상호 포함, 팽팽한 대칭관계, 모든 개별 형태들이 자체 완결성을 띠는 구성, 일련의 형태들에서 발견되는 특성의 질서들³⁴⁾은 모두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에 있어 구축적 양식을 완성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림 5> 빌라 로톤다.
출처: 캐롤 스트릭랜드, *클릭, 서양건축사*, 양상현 외 역 (서울: 예경, 2003), p. 112.



<그림 6> 팔라디오의 빌라 로톤다 평면도.
출처: 캐롤 스트릭랜드, *클릭, 서양건축사*, 양상현 외 역 (서울: 예경, 2003), p. 112.

4. 다원적 통일성

개별 부분이 독립적 생명력을 발하는 가운데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다원적 통일성은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 조형원리의 또 다른 특징이다.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양식은 부분들을 자유로운 구성 요소로 독립시킴과 동시에 개별 초점들을 병립시

27) Ibid., p. 215.

28) Ibid., p. 211.

29) 조선영, *op. cit.*, p. 24.

30) 하인리히 벨플린, *op. cit.*, pp. 211-212.

31) 콜로네이드(열주랑, 列柱廊)가 있는 포치(porch, 지붕이 있고 대개 양옆에 트인 현관). 또는 같은 간격으로 배열된 기둥으로 받친 지붕이 덮인 보도

32) 캐롤 스트릭랜드, *op. cit.*, p. 113

33) 하인리히 벨플린, *op. cit.*, p. 213.

34) Ibid., p. 214.



〈그림 7〉 팔라초 루첼라이.
출처: 하인리히 뵐플린, *미술사의 기초개념 Kunstgeschichtliche Grundbegriffe*, 박지형 역 (서울: 시공사, 1995), p. 265.

킴으로써 통일성을 획득한다. 병립 배치된 각 요소들은 전체와 유기적인 구성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개별 부분들은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필연적 요소로 등장한다. 개별 부분들의 독립성이나 독자성은 각 부분들이 전체에 귀속되어 있되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로 이해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³⁵⁾.

이탈리아 르네상스 건축물 중에서 다원적 부분들을 통한 고전주의적 통일성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팔라초 루첼라이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건물은 벽면의 구획이나 층을 나눔에 있어 철저히 통일성의 원칙을 준수한다³⁶⁾. 알베르티에게 있어 미란 각 부분들 사이의, 그리고 각 부분들과 전체 사이의 조화와 일치를 의미했다. 이러한 미를 얻기 위해서 그는 완벽한 통일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례체계를 주장했는데, 각 부분들을 지배하는 최고의 법칙은 위계(位階)의 원칙 혹은 점이(漸移)의 원칙이었다³⁷⁾. 위의 건축물에는 ‘독자적 부분들

로 이루어진 체계’라는 개념이 적용된다³⁸⁾.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의 다원적 통일성은 결국 전체 안에서 각 대상들을 끌고루 강조한다는 것이다. 부분은 전체에 의해서 규정되지만 각각 고유한 독자성을 가진다³⁹⁾. 전체적인 면에서는 물론 주요 요소와 부수물 간의 구별이 되며, 어디에 핵심이 놓여있는가는 드러나지만, 부수적 형태도 어쨌거나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감상자는 개별적인 것을 넘어 서서 전체가 있음을 늘 염두에 두지만 그 개별적인 것들은 여전히 단독적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일관된 분절성은 전체에 조화되어 다원적 통일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⁴⁰⁾.

본 장에서는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양식의 조형원리를 알아보았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고전주의의 중심원리는 완벽한 비례와 균형의 원리이다. 고요한 완벽성이 건축에 적용되면서 모든 형태는 완결된 그 자체로서 존재하며, 당당하게 독립적으로 살아 있는 부분이 되었다. 선형성, 평면성, 폐쇄성, 다원적 통일성은 결국 르네상스 고전주의 양식이 눈 앞에 드러나는 방법이며, 형태구성 차원의 조형원리이다.

III.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 조형원리의 현대패션 디자인에의 적용 분석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은 완벽한 형태로 이루어진 아름다움을 추구하였으며, 아름다움을 일종의 층축 상태로 이해하였다. 형태들은 조직적 필연성과 절대적 불가변성을 가지고 완벽하게 구현되었으며, 이를 통해 더할 나위 없이 명료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 양식은 선형성, 평면성, 폐쇄성, 다원적 통일성의 조형원리를 통해 구체화됨을 알아보았다. 본 장에서는 II장에

35) Ibid., pp. 224-225.

36) Ibid., p. 76.



37) 안경규, “르네상스 건축과 바로크 건축의 이원적 성향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 19.

38) 하인리히 뵐플린, op. cit., p. 263.

39) 금선주, “하인리히 뵐플린의 ‘양식론’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 36.

40) 하인리히 뵐플린, op. cit., p. 235.

<표 1>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양식의 조형원리

조형원리	개별원칙	건축사례	벨플린의 범주에 따른 반대개념
선형성	-고정된 시점 관찰 -균일하고 명료한 선적 구조의 가측적 윤곽선 강조		회화성
평면성	-정면적 요소의 병렬적 층 형태 -평면양식 -다양한 크기의 동일한 비례적 반복		깊이감
폐쇄성	-완결되고 명료한 법칙성 추구 -조직적 필연성과 절대적 불가변성		개방성
다원적 통일성	-개별 형태들의 자체 완결성 -독립적 병립 -각 요소들의 전체안에서의 다원적 통일성		절대적 통일성

서 살펴본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 조형원리의 개별적 특성에 기초하여 현대패션 디자인에 적용,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디자인 분석에 있어 그 분석의 틀은 철저하게 형태구성을 위한 원리적 차원에 입각하고 있으며, 요소적 차원인 디테일의 역사적 형태와 관련한 분석은 배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패션에 있어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의 조형원리 특성이 패션디자인의 형태구성 차원에서 적용될 경우 어떠한 표현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보고자 하며, 또한 그 특징적 결합원리를 도식화함

으로써 앞으로의 변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선형성 - 개별 윤곽선의 강조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의 선형성은 그 표현특성에 있어 명료한 선과 뚜렷한 윤곽선에 의해 드러나는 균질적 명료함으로 특징지어진다. 패션에 있어서 선형성에 의한 균질적 명료함은 다음의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인체의 관절 부위에 따른 명료한 형태 표현이며, 다른 하나는 트리밍을 통한 의복 구성선의 명료한 표현이다.

이는 모두 개별 윤곽선의 강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패션은 본질적으로 르네상스 고전주의 양식의 조형원리가 드러나는, 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조형예술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림 8>과 같이 몸에 꼭 맞게, 또는 몸의 형상을 따라 테일러드(tailored)되어진 아이템에 있어 옷은 인체의 각 관절과 개별적 결합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인체의 실루엣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림 8>의 상의 아이템 디자인은 인체의 관절부위에 절개선과 장식 디테일을 넣음으로써 인체의 각 부분을 명료한 구획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이템의 전체적인 실루엣 역시 인체의 형태를 드러내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구성에 있어서 인체의 관절 부위에 따른 디자인의 모범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위치에 절개선을 넣고 있다. 칼라와 몸판의 구분이 되는 네크라인의 경계, 몸판과 소매의 구획, 소매 안에서도 팔꿈치의 절개선을 통한 관절의 위치 표현, 가슴라인과 허리라인의 절개선 등은 각 관절부위의 명료한 구획과 더불어 인체의 형태에 따른 명료한 선적 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9>에서 <그림 11>에 이르는 디자인들은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 조형원리로서 선형성이 패션에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서, 의복 구성선의 개별 윤곽선 강조를 통한 명료함을 드러



<그림 8> Kyoko Higa.
출처: 1999 F/W.
Collections(I), p. 346.



<그림 9> Marc Jacobs.
출처: 2000 S/S.
Collections(I), p. 12.



<그림 10> Andrew Groves.
출처: 1999 S/S.
Collections(II), p. 90.



<그림 11> Mihara Yasuhiro.
출처: 1999 F/W.
Collections(I), p. 286.

내는 디자인이다. 위 디자인들은 칼라와 포켓 등 디테일의 형태라인과 앞여밈선, 절개선 등의 선적 강조를 보여주고 있다. 인체의 각 관절 및 실루엣을 드러내는 선적 요소는 물론, 옷 안에서 구성을 위해 구획되어진 모든 선은 트리밍을 통해 강조됨으로써 각 부위의 개별적 명료함을 보여주고 있다. 관찰자는 이러한 디자인을 마주함에 있어 의복 구성을 위한 개별 선들의 선적 강조에 집중하게 된다. 다시 말해 칼라, 포켓, 요크라인, 벨트라인, 심라인, 다트라인 등 의복을 구성하는 내부요소가 명확한 선과 형태로 형성, 재단되고, 의복의 외적 실루엣을 이루는 어깨라인, 허리라인, 햄라인 등 외부선이 뚜렷한 윤곽선으로 재단됨으로써 인체의 실루엣과 구성요소들을 명확하게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뚜렷한 윤곽선에 의한 명확한 형태의 선적 강조는 사물의 형태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명료함을 제공한다.

이러한 인체의 관절 부위에 따른 의복 구성 각 부분의 개별적 명료함은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이 추구하는 가축적, 선적 명료함이 드러나는 지점이 된다. 인체에 근거한 명확하고 개별적인 형태의 실루엣을 보여주는 개별 윤곽선의 강조는 다양한 스타일의 범람과 변화 속에서도 패션에서의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의 미적 규범을 보여주는 조형원리라 할 수 있다.

2. 평면성 - 대상 공간의 평면화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에 있어 평면성의 원리는 정면적 요소의 병렬배치를 통한 평면적인 층구조에 있었다. 따라서 패션디자인에 있어 대상 공간의 평면화는 단일 레이어 구성 위에 디테일의 병렬 배치 사례로 찾아볼 수 있다. 즉, 아우터(outer), 이너(inner), 바텀(bottom) 등 각기 아이템들은 평면적인 단일 레이어 구조를 가지며, 의복 내부선의 면분할과 디테일의 배치에 있어서 비례에 입각한 병렬배치를 말한다. 물론 그 형태상의 기하학적 구성은 말할 나위없다.

평면성이라는 조형원리 안에서 패션은 입체적인 인체 위에서 존재하나, 인체의 자연적 형태와는 무관한 평면적 구성의 원칙을 고수한다. 즉, 입체나 깊이감보다는 단순화 된 디자인 요소의 나열 개념을 갖는다. 의복의 구성선은 정확한 비례를 표현하며, 장식적 요소인 포켓, 버튼, 칼라 등은 기하학적 형태로 단순하고 평면적인 병립원리에 따라 조화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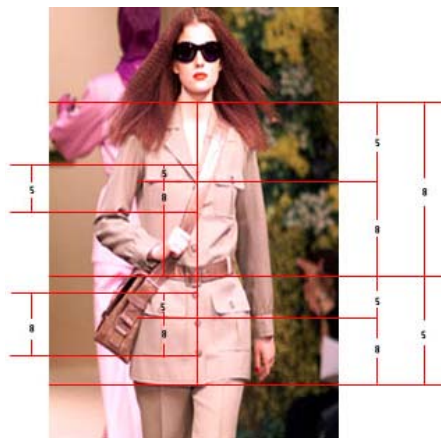
<그림 12>는 평면적 비례원리에 따른 포켓 디자인과 버튼의 배치에 중점을 둔 예이다. 여기서 각각의 포켓 크기는 정확한 비례를 나타내며 순수한 평면적 디테일로서 의상을 장식하고 있다. 단순 평면적 병립 원리에 따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높이와 넓이의 구획들로 구성되어진 포켓들의 배치, 그 포켓들은 동일한 비례를 다양한 크기로 반복하여 균제성과 안정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며 전체적인 면에서 평면적이면서도 기하학적인 구축적 구조로 완성된다. 버튼 역시 일정한 간격으로 그 배치에 있어 평면적 나열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패션에 있어 비례미학의 구현은 자연이나 미술작품의 형태미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비례 중에서 고대부터 가장 이상적이라고 불려온 황금비(golden mean, golden section)⁴¹⁾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황금비는 디자이너가 전체 의복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즉, 몸의 일부를 1로 생각할 경우 나머지 부



<그림 12> Moschino.
출처: 2008 F/W. www.style.com

분이 1.618로 되는 비를 지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아이템간의 전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각각의 디테일(detail)이나 트리밍(trimming), 그 밖의 액세서리(accessory) 등 모든 요소의 결합에 적용된다⁴²⁾. <그림 13>은 내부라인을 구성하는 디테일 중에서 포켓 디자인을 황금비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평면성에 입각한 병렬배치를 구현한 경우이다. 이 디자인은



<그림 13> Yves Saint Laurent.
출처: 2000 S/S. http://www.style.com

41) 황금 분할의 기본은 ‘하나의 선을 대, 소의 선으로 쪼개는 경우 작은 부분의 길이와 큰 부분의 길이의 비가 큰 부분의 길이와 전체 길이와의 비와 같다’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미적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는 것이다. 유송옥, *복식의장학* (서울: 수학사, 1994), p. 265.

42) Ibid., p. 268.



〈그림 14〉 Clavin Klein.
출처: 2000 S/S. *Collections(I)*,
p. 32.

기본적으로 상의에 있어 허리 벨트선을 기준으로 위, 아래의 비가 8:5를 이루고 있다. 또한 허리 벨트선을 기준으로 상체의 가슴 위치에 있는 위 포켓은 포켓 플랩(flap) 라인을 기준으로 허리선 위의 공간분배에 있어서 5:8의 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며, 벨트 아래에 위치한 포켓 역시 플랩 라인을 기준으로 허리선 아래 공간이 5:8로 분배되도록 배치되어 있다. 포켓의 크기 역시 황금비를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서 작은 포켓과 큰 포켓의 크기 비율은 5:8이고, 동일한 포켓에서 포켓과 포켓 플랩의 비도 5:8의 비율을 이루고 있다. 〈그림 14〉의 디자인 전개 역시 〈그림 13〉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의 조형원리로서 평면성은 패션에 있어 단일 레이어 구조 위에 평면적 구성 요소들의 비례에 입각한 나열적 배치로 표현될 수 있다. 단순하고 평면적인 병립과 비례 원리에 따른 조화는 이성적인 기하학적 구성을 통한 디자인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3. 폐쇄성 · 대상의 완결성

현대 패션에서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 조형원리의 또 다른 적용은 형태가 확정되고 견고하며 항구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대상의 완결성의 표현에 있다. 물론 모든 의상은 움직이는 인체 위에서 나

름대로 운동감을 통한 형태의 변화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감에 의한 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폐쇄성이 적용된 의상은 전체적인 실루엣은 큰 변화 없이 그 모습이 안정, 고정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파악된다. 즉, 움직임을 통한 형태의 변화와 생성을 보여주는 의상 보다는 딱 짜여진 정태성 안에서 형태의 조형성을 추구하는 의상에서 우리는 고전주의적 미감을 찾을 수 있다.

〈그림 15~17〉의 디자인은 최소한의 형태 변화를 보여주는 균질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즉, 의상 자체를 몸에서 따로 떼어놓아도 그 자체로서 있을 것만 같은 구축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축적 형태가 보여주는 정태성은 더 이상 변화시킬 것도, 추가시킬 것도 없이 완벽하게 구현된 구조와 형태가 가지는 시각적 특징이다. 패션에 있어 그 대상의 완결성으로 인해 획득되는 정태적인 양상은 영원불변할 것만 같은 고전주의적 미의식을 표출하는 것이다.

패션에 있어 대상의 완결성은 건축에서와 마찬가지로 내부 디테일의 엄격한 비례준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각 부분들의 위치나 형태상의 기하학적 구성은 대칭과 비례를 통해 완벽한 필연성을 띠며 전체를 완결된 구축적 구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림 17〉의 디자인은 패션에



〈그림 15〉 Celine.
출처: 1999 S/S.
Collections(II), p. 332.



〈그림 16〉 Calvin Klein.
출처: 2008 F/W.
<http://www.style.com>



<그림 17> Karl Lagerfeld.
출처: 2008 F/W.
www.style.com

있어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전통적 수트(suit) 디자인이다. 각각의 디자인들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테일러드 되어 있다. 또한 의복을 구성하는 내부 요소들의 비례적 배치는 모범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 디자인들은 몸의 상황과 움직임에 따른 공간적 형태 변형이 최소화된 채, 항상 동질적 공간성을 구축하고 있다.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몸은 표현활동이 억압되며 수동적 물체로 전락하고 그에 강압되는 신체황금비와 기하학적 형태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의 조형원리로서 폐쇄성은 현대 패션에 있어 전체적 인상의 고정된 대상의 완결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더욱이 비례적으로 완벽하게 테일러드 되어진 패션 형태는 몸과 패션의 관계에 있어 항상 동질적이며 완성된 균질적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가는 인체를 이성적인 감각에 의해 이상적인 형태로 확정시킨다.

4. 다원적 통일성 · 독립된 부분들의 유기적 조화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 조형원리 중 다원적 통일성의 개념은 유기체적 조화와 질서라는 개념으로 확대되는데, 이것은 개별부분이 독립적 생명력을 발하는 가운데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유기적 구조란 전체를 파괴하지 않고는 각

부분도 바뀔 수 없는 그런 조화로, 개별 요소들은 나름대로 전체의 조화에 귀속되어 있으면서도 전적으로 독립적 생명력을 발하는 가운데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의 다원적 통일성 원리는 현대패션에 있어 각 디테일의 독립적 완결성과 유기적 조화를 통해 표현될 수 있다. 의상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독립시키고, 각각의 요소들은 자체 완결성을 가지면서도 전체에 유기적으로 융합됨으로써 각기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림 18>의 경우, 의복의 장식적 요소인 칼라, 포켓, 벨트 등의 디테일들은 전체 부분에서 떼어놓았을 경우에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갖는다. 디테일을 둘러싸고 있는 블레이드 트리밍은 각 디테일의 독립적 성향을 더욱 또렷이 하며 다른 영역과의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개별적인 완결성을 드러낸다. <그림 19>는 포켓 디자인에 있어 <그림 18>과 마찬가지로 디테일의 독립적 완결성을 볼 수 있다. <그림 20>과 <그림 21>에서 보여지는 벨트 형태의 디테일 디자인은 의상 전체의 스타일 완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지만 이를 따로 분리했을 경우에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며 별도의 개체로서의 아름다움도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림 18>에서 <그림 21>의



<그림 18> Andrew Gn.
출처: 2004 F/W.
www.style.com



<그림 19> Kyoko Higa.
출처: 1999 F/W.
Collections(I), p. 342.



〈그림 20〉 Dolce & Gabbana. 출처: 2001 F/W. www.style.com
 〈그림 21〉 Michael Kors. 출처: 2002 F/W. www.style.com

디자이너들에서 각기 디테일들은 전체 안에서 개별적 완성도를 가진 독립된 디테일이다. 그러나 그 개별 디테일들을 전체에서 분리시켰을 경우 그 각자는 온전한 형태를 지니고는 있으나 전체 안에서 보여지는 감각은 사라지게 된다. 즉, 개별 디테일의 형태적 완성성은 가지고 있으나 전체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스타일의 감각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위의 디테일들이 전체를 떠나서는 그 디자인의 완성도를 말할 수 없는 전체에 귀속되어진 디자

인이기 때문이다. 즉, 각기 독립된 디테일들은 전체에 유기적으로 조화되어 있을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의 조형원리인 다원적 통일성의 패션에의 적용은 각 부분들이 전체와 독립된 자체 완결성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전체는 단순한 결합체 이상의 의미를 띠게 되는 유기적 조화의 표현에 중점을 두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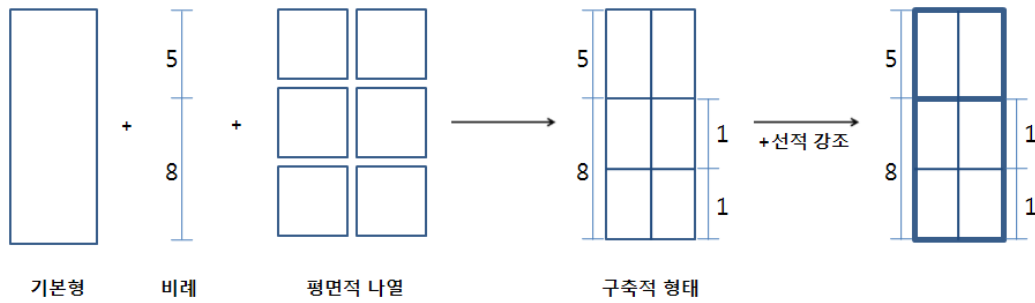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 양식은 개별과 전체 모두 독립된 부분들로 이루어진 통일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체계가 엄격하게 짜여 있으면 있을수록 그 체계 안에서 부분들이 갖는 독자성은 더욱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각 부분의 디테일 디자인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장식을 하고 있는 각 부분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강조된 부분들은 전체적인 체계 안에 조화롭게 결합하여 포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패션에 적용될 수 있는 조형원리로서 다원적 통일성은 이렇듯 의상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의 독립적 완결성을 보장하고 그 개별적 강조와 그 강조된 부분들의 유기적 조화라고 설명되어질 수 있다.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의 조형원리와 현대패션에 적용된 디자인 특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의 조형원리는 현대패션에 적용됨에 있어 개별 윤곽선의 강조, 대상 공간의 평면화, 대상의 완결성, 독립된 부분들의 유기적

〈표 2〉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의 조형원리와 현대패션에의 적용

건축		패션	
원리	개별원칙	원리	개별원칙
선형성	-고정된 시점 관찰 -균일하고 명료한 선적 구조의 가측적 윤곽선 강조	개별 윤곽선의 강조	-신체 관절 구분에 따른 의복 구성선의 개별적 명료함 -의복 구성선의 윤곽선 강조
평면성	-정면적 요소의 병렬적 층 형태 -평면양식 -다양한 크기의 동일한 비례적 반복	대상 공간의 평면화	-단일 레이어 구성 -의복 구성요소들의 평면성 -비례에 입각한 나열적 배치
폐쇄성	-완결되고 명료한 법칙성 추구 -조직적 필연성과 절대적 불가변성	대상의 완결성	-전체적 인상이 고정된 정태성의 표현 -동질적이며 완성된 균질적 공간 구축 -비례를 통한 내부 구성의 완벽한 필연성
다원적 통일성	-개별 형태들의 자체 완결성 -독립적 병립 -각 요소들의 전체안에서의 다원적 통일성	독립된 부분들의 유기적 조화	-각 디테일의 독립적 완결성 -전체에 대한 유기적 조화



〈그림 22〉 현대패션에 적용된 르네상스 고전주의 조형원리의 표현양식 도식화.

조화의 경향으로 나타났다. 개별 윤곽선의 강조는 신체관절 구분에 따른 의복 구성선의 개별적 명료함과 의복 구성선의 윤곽선 강조로 표현되었으며, 대상 공간의 평면화는 단일 레이어 구조, 의복 구성요소들의 평면성, 비례에 입각한 나열적 배치를 특징으로 하였다. 대상의 완결성은 전체적 인상이 고정된 정태성의 표현, 동질적이며 완성된 균질적 공간 구축, 비례를 통한 내부 구성의 완벽한 필연성으로 표현되었으며, 독립된 부분들의 유기적 조화는 각 디테일의 독립적 완결성, 전체에 대한 유기적 조화를 특징으로 하였다. 이러한 표현특성에서 도출될 수 있는 특징적 표현양식은 선적 강조, 비례, 구축적 형태, 평면적 나열이라 할 수 있으며, 〈그림 22〉는 이를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22〉는 예술양식으로서의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양식의 조형원리가 현대 패션에 적용될 수 있는 변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작품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위와 같은 디자인 원리는 앞으로의 디자인 전개에 시각적 요소의 결합을 위한 발상의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르네상스 고전주의의 조형원리를 뵐플린의 양식사적 해석방법을 통해 순수가시성의 측면에서 그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형태 구성 차원의 관점에서 르네상스 고전주의의 건축 조형원리가 적용된 현대패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표현양식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양식은 선형성, 평면성, 폐쇄성, 다원적 통일성의 조형원리를 특징으로 하였다. 선형성은 고정된 정면시점 관찰 형태, 균일하고 명료한 선적 구조의 가축적 윤곽선의 강조로 나타났으며, 평면성은 정면적 요소의 병렬적 층 형태, 평면양식, 다양한 크기의 동일한 비례적 반복을 통해 성취되었다. 폐쇄성은 완결되고 명료한 법칙성의 추구, 조직적 필연성과 절대적 불가변성을 통해 구축적 양상으로 전개되는 건축을 의미하였으며, 다원적 통일성은 개별 형태들의 자체 완결성과 독립적 병립, 강조된 개별 요소들의 전체 안에서의 조화를 통해 나타났다.

이러한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양식의 조형원리 특성을 현대패션에 적용, 그 각각의 표현특성을 살펴본 결과, 르네상스 고전주의 건축의 조형원리는 현대패션에 적용됨에 있어 개별 윤곽선의 강조, 대상 공간의 평면화, 대상의 완결성, 독립된 부분들의 유기적 조화의 경향으로 나타났다. 개별 윤곽선의 강조는 신체관절 구분에 따른 의복 구성선의 개별적 명료함과 의복 구성선의 윤곽선 강조로 표현되었으며, 대상 공간의 평면화는 단일 레이어 구조, 의복 구성요소들의 평면성, 비례에 입각한 나열적 배치를 특징으로 하였다. 대상의 완결성은 전체적 인상이 고정된 정태성의 표현, 동질적이며 완성된 균질적 공간 구축, 비례를 통한 내부 구성의 완벽한 필연성으로 표현되었으며, 독립된 부분들의 유기적 조화는 각 디테일의 독립적 완결성, 전체에 대한 유기적 조화를 특징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는 르네상스 고전주의 예술사조 안에서 건축 외의 조형예술분야 및 해당 시

기의 복식사적 요소 분석 내용을 추가하여 패션과 예술의 조형원리, 요소적 관계성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행한 바와 같은 형태구성 차원의 조형원리적 측면의 디자인 분석 방법을 다른 예술사조에도 다양하게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겔런더, 마크 (2007). *보이는 건축 보이지 않는 생각: 건축 디자인이론의 비판적 역사*. 최아사역.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 금선주 (1995). “하인리히 뵐플린의 ‘양식론’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기 (2005). “렘 쿨하스 건축의 개방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곤, 김경희 (2003). *서양건축사*. 서울: 기문당.
- 바워, 헤르만 (1998). *미술사학의 이해*. 홍진경 역. 서울: 시공사.
- 뵐플린, 하인리히 (1995). *미술사의 기초개념(Kunstgeschichtliche Grundbegriffe)*. 박지형 역. 서울: 시공사.
- 스트릭랜드, 캐롤 (2003). *클릭, 서양건축사*. 양상현, 서민영, 조난주, 김마리 역. 서울: 예경.
- 안경규 (1996). “르네상스 건축과 바로크 건축의 이원적 성향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송옥 (1994). *복식의장학*. 서울: 수학사.
- 정우영 (2004). “회화작품에 대한 양식사적 해석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영 (2002). “지역사회공동체(communitiy)로서의 교회환경디자인 연구: 뵐플린의 미적 지각 이론과 프랙탈 기하학의 조형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제, 권명광, 안상수, 이순중 기획 (2000). *디자인사전*. 서울: 안그래픽스.
- 페브스너, 니콜라우스 (2000). *유럽 건축사 개관*. 김복지 외 역. 서울: 태림문화사.